여야 선거제 개편 '수 싸움' 치열…정기국회 격돌 예고

총선 7개월 앞두고 '게임의 룰' 협상…소선거구제 유지만 접점

비례대표제 형태·비례 의석수 확대·의원정수 축소 등 평행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선거제를 둘러싼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를 향해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나란히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양측의 간극만 확인돼 추후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보이는 건 '소선거구제 유지' 정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의원정수 축소 등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형국 속에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다.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은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 체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제와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둘러싼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치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대입해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립형 복귀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권역별 비례제 도입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 비례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비례제도 고려해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병립형은 '비례성 강화'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인 데다 소수 야당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현재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도 쟁점의 하나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만약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 정수 축소'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소수 의견이지만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여야를 떠나 지역구 축소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매우 민감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또 다른 난제인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국힘 수산물 소비 활성화 간담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수산물 소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5개월이나 넘겼다.

지역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 등이 결정돼야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면 한창 선거 운동 중 뒤늦게 지역구 후보가 바뀌고, 현수막을 고쳐 달아야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총에서는 큰 틀에서 의원 수 감축, 소선구제, 병립형 세 가지로 가닥을 잡되 권역별로 할지 전국으로 할지, 의원 정수를 얼마나 줄일지는 정하지는 않았다"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견이 없지만,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에서 워낙 이견이 커 국회의장이 언급한 9월 내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 수색

김만배에 돈 받고 허위 인터뷰 혐의

검찰이 신학림(64)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 신씨의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거지와 그가 대표로 있는 서울 종로구 업체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출판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는 김씨와 공모해 20대 대선 직전 윤 대통령과 대장동 사업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에 "김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주무과장이던 윤석열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고, 한편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과다한 요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신의 인터뷰 형식 발언을 대선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사적 만남을 가장해 김씨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발언을 녹취한 후, 2021년 9월20일께 김씨로부터 청탁 이행과 결부된 대가로 1억62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후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김씨의 육성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15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카페에서 김씨가 신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1시간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근거로 당시 대선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신씨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보도했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간 점에 비춰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만배가 저한테 거짓말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1억6200만원은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의 책 3권을 판매한 값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들쭉날쭉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왜?

민주 지지율 50% 대 27% 편차

조사 방식·'샤이 민주' 등 분석

최근 여론조사 조사 기법에 따라 정당 지지율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응답 방식은 민주당이, 전화면접 방식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50%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찍은 것은 물론 해당 업체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한 33.9%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전주 12%포인트에서 16.1%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34%를, 민주당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이며 응답률은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동응답 방식(알앤서치)과 전화면접 방식(한국갤럽)에 따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론조사 방식에 관계없이 30%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집이 튀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화 면접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지지층의 결속력이 단단하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샤이 보터(숨은 표심)층도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내부에선 주류와 비주류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